3 장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게 하소서 (이사야 50:7)

Build me a son, O Lord, who will be proud and unbending in honest defeat.
긍지: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느 나라 편?

초등학교 5 학년 때라고 기억됩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과의 농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라디오 중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이 참 곤란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필리핀 사람들도 하나님께 필리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람들 모두 똑같이 사랑하시지 우리나라 사람만 특별히 더 사랑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곤란한 문제에 대해 조금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력 있는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실력 있는 팀이 이기는 것이 가장 공정한 일이고, 우리 실력이 필리핀보다 약하다면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패배는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고 근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는 것에 대한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까지 부끄러워하지 말라

어려서 가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운 옷을 입고 다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만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중학생이었던 사춘기에는 정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가방으로 누빈 곳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기 전에는 그것이 부끄럽더니, 깊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리고 다녔던 가방을 치웠습니다. 자신 있게 깁고 누빈 곳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멋있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럽지 않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한 후 나보다 실력이 더 나은 사람에게 패배하는 일은 조금 섭섭한 일이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게으르고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가난해졌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살지만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남보다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부끄럽지 않은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에 못지 않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 포도는 시어”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잘 익은 포도를 보고 그것을 따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포도가 불행하게도 좀 높이 달려 있어서 여우가 힘써 점프를 해도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되자 그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도는 시어.”

자신의 정직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여우 때문에 멀쩡하게 잘 익은 포도가 신 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에는 신포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포도가 다 신 포도는 아닙니다. 신 포도를 신 포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잘 익은 좋은 포도를

무조건 신 포도로 매도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포도를 신 포도로 매도하는 여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다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일이 누구에게도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무조건 신 포도로 몰아붙이고 정죄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살다보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에 대해 담담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에 도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가난을 용납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모든 부자를 무조건 '신 포도'로 몰아붙이고 정죄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악한 일입니다.

건강한 세상과 사회가 되려면 '당당한 실패와 가난'과 '겸손한 성공과 부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 할 줄 아는 마음과, 성공하고 부해졌을 때 겸손하여 실패하고 가난해진 자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여 실패한 자들에 대하여 너그럽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참으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직하게 성공한 사람들까지도 '신 포도'로 매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정말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다섯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섯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네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 달란트와 네 달란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전혀 차이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 열심히 장사하여 한 달란트를 남겼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 열심히 장하사다가 원금도 건지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얘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장사를 하다보면 남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법이란다. 사람들은 혹시 너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비방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내가 보기엔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임에 틀림이 없단다. 염려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또 다시 맡길 것이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지금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달란트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많이 남겼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적게 남겼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 이라고 평가하시면 성공한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라고 평가하시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가 적다는 이유로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무조건 달란트가 많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성적과 평가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한 달란트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한 달란트를 이용하여 열심히 살 생각을 하기 보다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매도하고 비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열등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제일교포 야구선수였던 장훈 선수가 처음 프로로 데뷔하여 좋은 성적을 내자 일본 관중들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일본 관중 가운데 한 사람이 장훈 선수에게 "조센징 가라"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선동이 되어 장내에 가득했던 일본 관중들이 한 목소리로 장훈 선수를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센징 가라! 조센징 가라!"

관중들의 야유가 잦아들 때까지 조용히 타석에서 벗어나 기다리던 장훈 선수가 다시 타석에 들어서면서 관중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그리고는 일본 투수가 던지는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홈런을 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샘터]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장훈 선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이 좀 적고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소득이 좀 많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만하여 거들먹거린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 부끄러워하는 부모 없다

프랑스에는 '미슐랭 가이드' 라는 곳이 있는데 미슐랭 가이드는 식당의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프랑스의 식당과 요리사들의 꿈 중 하나는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 3 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지금까지 그곳으로부터 별 3 개 평가를 받은 식당은 프랑스 전체를 통틀어서 25 곳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이 배르나르 루아조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했던 코트도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루아조라고 하는 사람은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 3 개 평가를 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했고 드디어 1991 년에 꿈에도 그리던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 3 개 평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3 년 봄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골미요'라는 식당 가이드가 그의 식당 평점을 19 점(20 점 만점)에서 17 점으로 낮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수능 점수를 좀 낮게 받고 나서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죠?" 저는 당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어디 있냐?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면 내 아들이고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하면 남의 아들이냐? 아버지는 너 안 부끄러워. 공부를 좀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공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 답장이 제 막내아들에게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결국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막내아들이 성적이 좀 떨어져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것을 늘 부끄러워하여 어깨를 움츠리고 다닌다면 무척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막내아들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형들 못지 않게 훌륭한 자기 일을 찾을 것이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불신앙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자존감, 즉 열등의식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와 같은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살다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남보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더 뒤처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창피하게 이솝 우화의 여우처럼 세상을 '신 포도'로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조센징 가라"라고 야유하는 세상을 향해 두 발을 굳게 딛고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라고 큰 소리 한번 지르고 세상의 담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응수하는 당당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 50:7).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근사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당신 자신과 자녀를 위해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보면 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기죽을 것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삐뚤어질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빈정거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당신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세상에서 좀 실패했다고 기죽지도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러나 언제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 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이렇게 키워라 ...

1. **부끄럽지 않은 일까지 부끄러워하는 자녀로 키워서는 안된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러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부끄럽지 않은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정직한 패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자녀에게 이런 당당한 승복의 자세를 가르쳐라.
2.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게 가르쳐라**
   성공과 실패는 달란트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달란트가 적다고 무능한 사람이라 판한하지 말 것이며, 달란트가 많다고 성공한 사람이라 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자녀들이 사람의 평가 기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앞에서 성실하고 당당하게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교육하라.
3. **높은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라**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자존감, 즉 열등감이다. 낮은 자존감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온다. 그런 점에서 볼때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을 베풀어주셨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라.